

## 『素問·氣厥論』의 五臟의 寒熱이 傳移되는 原理에 對한 考察

<sup>1</sup>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鄭憲瑩<sup>1</sup>\*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Heat and Cold metastasis among the Five Viscera on the *Gigualron of Somun*(素問·氣厥論)

Jeong Heon young<sup>1</sup>\*

<sup>1</sup>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metastasis among the Five Viscera are given, passim, in the *Hwangjenaegyong* (黃帝內經). Generally, the metastasis among the Five Viscera followed 'mutual generation' and 'mutual overcoming' of the Five Elements. But, the metastasis among the Five Viscera on the *Gi Gual Ron* not followed. The metastasis are connected with the Eight Diagrams. The Eight Diagrams are classified 'Earlier Heaven' and 'Later Heaven'. It also be assigned the Five Elements.

**Results** : The metastasis order and the principle of shift its location from 'Earlier Heaven' to 'Later Heaven' are similar.

**Conclusions** : Therefore, the metastasis among the Five Viscera on the *Gi Gual Ron* is based on the law of shift its location from 'Earlier Heaven' to 'Later Heaven'.

**Key Words** : *Gi Gual Ron*(氣厥論), metastasis(傳移), Eight Diagrams(八卦) Earlier Heaven(先天), Later Heaven(後天).

## I. 序 論

『素問·四氣調神大論』의 “聖人不治已病 治未病 不治已亂 治未亂”에는, 구체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한다는 것과 만약 질병이 발생된 뒤에는 早期에 치료한다는 것과 질병이 발생되어 심해졌을

때는 病機를 이해하여 傳移를 막는다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sup>1)</sup>

‘傳移’란 病의 進行情程에 있어 病邪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한다. 傳移되는 形式의 대부분은 五臟 사이의 相生과 相剋의 關係를 中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傳移가 相生의 관

\* 교신저자 : 鄭憲瑩.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jikjae@wku.ac.kr Tel : 063-850-6808

접수일(2014년 04월25일), 수정일(2014년 05월15일),  
게제확정일(2014년 05월16일).

1)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p.12-13.

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질병이 낮거나 또는 쉽게 치료되는 경우로서 豫後가 좋다. 반면에 相靨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질병이 加重되거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로서 豫後가 좋지 않다.

傳移되는 형식에 있어서 外部의 邪氣가 表部로부터 시작되어 五臟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五臟으로 전변되어서는 五行의 相生과 相靨의 관계로 전변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三陰三陽의 순서에 따라 전변하는 등 다양하다. 傳移는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어서 『素問』과 『靈樞』의 여러 곳에서 ‘傳移’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素問·氣厥論』은 일반적인 五行의 相生과 相靨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素問』과 『靈樞』의 여러 편과 차이가 있다.

『素問·氣厥論』에 대한 연구로는 琴桐樹의 연구<sup>2)</sup>가 있었고, 疾病의 傳移에 대한 研究로는 方正均<sup>3)</sup>과 金鍾鉉<sup>4)</sup>의 연구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原文의 校正이나, 傳移되어 나타나는 類型을 정리하여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기타 胡天雄<sup>5)</sup>과 朴讚國<sup>6)</sup>의 연구에서도 傳移되는 類型에 대한 견해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은 하고 있으나, 傳移가 어떠한 原理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素問·氣厥論』의 五臟의 寒熱의 傳移의 원리에 대하여 역대의 주석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성과들과 다른 각도로 이해하고자 연구하였다.

## II. 本 論

### 1. 歷代의 註釋

2) 琴桐樹. 『素問·氣厥論』에 대한 연구. 원광현의학. 1995. 5(1).  
3) 方正均. 『素問·玉機真藏論』의 病傳에 대한 考察. 2006.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0(1).  
4) 金鍾鉉, 丁彰炫, 白裕相. 『黃帝內經』에 나타난 病의 傳變類型에 관한 考察. 2010.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0).  
5)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6) 朴讚國.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素問·氣厥論』에 서술되어 있는 五臟의 寒熱傳移形態에 대한 역대의 주석을 요약하면 五行 상호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黃帝內經太素』<sup>7)</sup>와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sup>8)</sup>가 대표적인 예이다.

楊上善은 “五臟의 病이 傳移됨에 무릇 五邪가 있으니, 虛邪·實邪·賊邪·微邪·正邪 등을 말한다. 邪氣가 뒤로부터 온 것을 虛邪라 하고, 앞으로부터 온 것을 實邪라 하고,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온 것을 微邪라 하고, 이기는 곳으로부터 온 것을 賊邪라 하고, 邪氣가 자신의 위치로부터 일어난 것을 正邪라고 한다.”<sup>9)</sup>고 하여 五臟의 寒熱이 서로 전이되는 것을 五邪로써 설명하였다.

寒熱을 구분하지 않고 전변되는 형태를 요약하면, 腎에서 脾로 傳移되는 것과 脾에서 肝으로 傳移되는 것은 ‘從所不勝來’에 해당되므로 微邪로 설명하였다. 肝에서 心으로 傳移되는 것과 肺에서 腎으로 傳移되는 것은 ‘邪從後來’에 해당되므로 虛邪로 설명하였고, 心에서 肺로 傳移되는 것은 ‘從勝處來’에 해당되므로 賊邪로 설명하였다. 본 내용에서 언급된 微邪·虛邪·賊邪는 五行의 관계로는 微邪는 ‘水侮土’에 해당되고, 虛邪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1.<sup>10)</sup>과 같다.

	寒	熱
腎→脾	腎移寒於脾 此從不勝來也	腎受熱氣 傳之與脾 名曰微邪
脾→肝	脾得寒氣 傳與肝臟 名曰微邪	脾受熱氣 傳之與肝 名曰微邪
肝→心	肝得寒氣 傳於心臟 名曰虛邪	肝受熱氣 傳之與心 名曰虛邪

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8)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p.793  
“五臟病傳 凡有五邪 謂虛實賊微正等. 邪從後來者名虛邪, 從前來名實邪, 從所不勝來名微邪, 從勝處來名賊邪 邪從自起名曰正邪.”  
1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pp.793-795.

心→肺	心得寒氣 傳與肺者 名曰賊邪	心受熱氣 傳之與肺 名曰賊邪
肺→腎	肺得寒氣 傳與腎臟 名曰虛邪	肺受熱氣 傳之與腎 名曰虛邪

표 1. 『黃帝內經太素』의 寒熱傳移

馬蒔는 腎에서 脾로 전이되는 것을 “腎이 寒邪에 傷하고 脾로 傳하는 것은 自己를 이기는 곳으로 전하는 것이니 그 寒邪가 盛한 것이다.”<sup>11)</sup>고 하였고, 脾에서 肝으로 전변되는 것을 “또한 脾가 寒邪를 肝으로 옮기는 것 또한 自己를 이기는 곳에 전하는 것이니 그 寒邪가 盛한 것이다.”<sup>12)</sup>고 하였는데 이 두 경우는 각각 五行의 관계에 있어서 ‘水侮土’, ‘土侮木’에 해당된다. 肝에서 心으로 전이되는 것을 “또한 肝이 心으로 寒邪를 옮기는 것은 내가 生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다.”<sup>13)</sup>라 하였으며, 肺에서 腎으로 전변되는 것을 “또한 肺가 寒邪를 腎에 옮기는 것은 내가 生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다.”<sup>14)</sup>고 하였으니 이 두 경우는 ‘木生火’, ‘金生水’에 해당된다. 心에서 肺로 전변되는 것을 “또한 心이 寒邪를 肺에 옮기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 전하는 것이다.”<sup>15)</sup>고 하였으니 ‘火剋金’에 해당된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2.16)와 같다.

	寒	熱	비고
腎→脾	腎傷於寒而傳於脾 傳其所勝己者 其寒盛矣	脾土制水 腎反移熱以與之 傳其所不勝者	水侮土

1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2. “腎傷於寒而傳於脾 傳其所勝己者 其寒盛矣”

12)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2. “又脾移寒於肝 亦傳其所勝己者 其寒盛矣”

1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2. “又肝移寒於心 傳其所生者”

1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2. “又肺移寒與腎 傳其所生者”

1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2. “又心移寒於肺 傳其所不勝者”

1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252-253.

		其熱盛矣	
脾→肝	又脾移寒於肝 亦傳其所勝己者 其寒盛矣	今脾移寒於肝 傳其所勝己者 其熱盛矣	土侮木
肝→心	又肝移寒於心 傳其所生者	肝移熱於心 傳其所生者	木生火
心→肺	又心移寒於肺 傳其所不勝者	心移熱於肺 傳其所勝者	火剋金
肺→腎	又肺移寒與腎 傳其所生者	肺熱有餘 傳之於腎 傳其所生者	金生水

표 2.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의 寒熱傳移

이상을 요약하면 馬蒔는 순수히 五行의 相生·相剋·相侮로써 설명하였고, 이에 비해 楊上善은 五邪로써 설명하였으나 五邪 또한 五行의 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모두 五行의 관계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註釋書を 제외한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sup>17)</sup>, 『黃帝內經素問吳注』<sup>18)</sup>, 『黃帝內經素問直解』<sup>19)</sup>, 『類經』<sup>20)</sup> 등에는 病症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의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傳移形態에 관한 서술은 없이 病症이 나타나는 기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王冰은 “肝은 血을 간직하나 寒邪가 침입하면 陽氣가 흩어지지 않고, 陽氣가 흩어지지 않으면 血이 모이고 氣가 막히므로 癰腫이 되며 또한 少氣가 된다. 脾藏은 肉을, 肝은 筋을 주관하니 溫하면 筋은 풀어지지만 肉은 冷하니 筋急하므로 筋攣이 된다. 心은 陽藏이 되며 神이 그 안에 있으므로 寒邪가 침입하면 神이 혼란하여 떠나므로 狂이 되고, 陽氣가 寒과 서로 불으므로 떨어지고 막혀서 胸膈이 막혀

17)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8)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19) 高世祚.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20)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통하지 않는다. 心은 陽藏이나 도리어 寒을 받아서 寒氣가 소멸되지 않고 肺로 옮기면 寒이 心火를 따라 안으로 金精을 녹여서 金이 火邪를 받으므로 中消가 된다. 그러나 肺藏이 소멸되고 녹으면 氣가 의지할 바가 없으므로 하나를 마시면 둘이 소변으로 나오니 金과 火가 서로를 해치므로 죽어서 치료할 수 없다. 肺는 氣를 저장하고 腎은 水를 주재하니 肺의 寒이 腎에 들어가면 腎氣가 有餘하게 되고, 腎氣가 有餘하면 올라가 肺로 치닫게 되므로 涌水라고 말하였다. 大腸은 肺의 府가 되나 肺와 腎이 모두 寒의 침입을 받아 上下가 모두 의지할 바가 없으므로 水氣가 大腸으로 침범한다. 腎이 寒을 받으면 水液을 運化하지 못하여 大腸에 水氣가 쌓여서 流通되지 못하므로 빨리 달리면 주머니에 장물을 담아둔 듯 출렁이는 腸鳴이 있으니 水病이 된 것이다.”<sup>21)</sup>고 하였다. 이는 五臟의 熱傳變形態에 관한 서술은 없고, 전변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설명이다. 나머지 註釋書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傳變形態에 관한 서술은 보이지 않았으며, 참고로 아래의 표3<sup>22)</sup>, 표4<sup>23)</sup>, 표5<sup>24)</sup>, 표6<sup>25)</sup>과 같다.

## 2. 後代의 研究

『素問·氣厥論』의 傳移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

- 21)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80-181. “肝藏血 然寒入則陽氣不散 陽氣不散則血聚氣滯 故爲癰腫又爲少氣也. 脾藏主肉肝主筋溫則筋舒肉冷則筋急故筋攣也. 心爲陽藏神處其中 寒薄之則神亂離故狂也 陽氣與寒相薄故隔塞而中不通也. 心爲陽藏 反受諸寒寒氣不消乃移於肺 寒隨心火內鑠金精金受火邪故中消也 然肺藏消鑠氣無所持故今飲一而洩二也 金火相賊故邪不能治. 肺藏氣腎主水 夫肺寒入腎 腎氣有餘 腎氣有餘則上奔於肺故云涌水也 大腸爲肺之府 然肺腎具爲寒薄上下皆無所持故水氣客於大腸也 腎受凝寒不能化液大腸積水而不流通故其疾行則腸鳴而濯濯有聲如囊裏漿而爲水病也”
- 2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80-181.
- 23)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167-168.
- 24)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342-343.
- 25)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p.254-255.

로는 琴<sup>26)</sup>, 金<sup>27)</sup>의 연구가 있다.

琴의 연구에서는 “腎移寒於肝”은 “腎移寒於脾”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黃帝內經太素』, 『鍼灸甲乙經』, 『新校正』 등의 서적에서 原文을 “腎移寒於脾”로 고쳐 놓았고, 馬蒔, 景岳, 張志聰 등도 “腎移寒於脾”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석을 하였으며, 본문을 볼 때에도 “腎移寒於肝”은 두 번 나오고, “腎移寒於脾”는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28)</sup> 金의 연구에서도 이에 대하여 원래 肝으로 되어 있으나 校釋에 따라 脾로 고쳤다.<sup>29)</sup>

傳移에 관하여 琴은 藏府氣의 逆亂으로 寒熱이 극성하게 되면 轉移되어 여러 가지 병증이 발생함을 논술하였다. 다만 寒의 轉移는 五臟에 그치고, 熱의 轉移는 五臟六腑에 모두 미치게 된다는 것은 陰의 縮入하는 성질과 陽의 發揚하는 성질에 의거하여 寒熱의 轉移機轉을 설명하였다.<sup>30)</sup>

金은 氣의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虛實의 병을 다룬 것으로, 五臟의 단계적 損傷이 아닌 局部의 氣循環문제로 서술하였다. 五臟과 六腑를 나누어 설명한 것은 五臟傳變은 氣循環과정의 不全을 의미하며, 六腑의 전변은 情志傷으로 시작된 津液의 損傷과정을 의미한다고<sup>31)</sup> 하였다.

胡天雄은 비록 轉移하는데 일정한 원칙이 없기는 하지만, 『素問·陰陽別論』과는 相通하는 점이 있기

- 26) 琴桐樹. 『素問·氣厥論』에 대한 연구. 원광한의학.1995. 5(1).
- 27) 金鍾鉉, 丁彰炫, 白裕相. 『黃帝內經』에 나타난 病의 傳變類型에 관한 考察. 2010.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0).
- 28) 琴桐樹. 『素問·氣厥論』에 대한 연구. 원광한의학.1995. 5(1). p.79
- 29) 金鍾鉉, 丁彰炫, 白裕相. 『黃帝內經』에 나타난 病의 傳變類型에 관한 考察. 2010.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0).p.170
- 30) 琴桐樹. 『素問·氣厥論』에 대한 연구. 원광한의학.1995. 5(1). p.80.
- 31) 金鍾鉉, 丁彰炫, 白裕相. 『黃帝內經』에 나타난 病의 傳變類型에 관한 考察. 2010.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0). p.187.

	寒	熱
腎→脾	肝藏血 然寒入則陽氣不散 陽氣不散則血聚氣澁 故爲癰腫又爲少氣也	脾土制水腎反移熱以與之是脾土不能制水而受病故久久傳爲虛損也 腸澀死者腎主下焦象水而冷 今乃移熱是精氣內消下焦無主以守持故腸澀除而氣不禁止
脾→肝	脾藏主肉肝主筋溫則筋舒肉冷則筋急故筋攣也	肝藏血又主驚故熱薄之則驚而鼻中血出
肝→心	心爲陽藏神處其中 寒薄之則神亂離故狂也 陽氣與寒相薄故隔塞而中不通也	兩陽和合火木相燔故肝熱入心則當死也
心→肺	心爲陽藏 反受諸寒 寒氣不消乃移於肺 寒隨心火內鑠金精金受火邪故中消也 然肺藏消鑠氣無所持故今飲一而溲二也 金火相賊故死不能治	心肺兩間中有斜膈膜膈膜下際內連於橫膈膜故心熱入肺久久傳化乃爲高熱消渴而多飲也
肺→腎	肺藏氣腎主水 夫肺寒入腎 腎氣有餘 腎氣有餘則上奔於肺故云涌水也 大腸爲肺之府 然肺腎具爲寒薄上下皆無所持故水氣客於大腸也 腎受凝寒不能化液大腸積水而不流通故其疾行則腸鳴而濯濯有聲如囊裏漿而爲水病也	柔謂筋柔而無力 瘥謂骨瘥而不隨 氣骨皆熱 髓不內充故骨瘥強而不舉筋柔緩而無力也

## 丑 3.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의 寒熱傳移

	寒	熱
腎→脾	腎移寒於脾 腎主寒水之化 而合於骨 脾主肌肉 寒毒移於骨肉之間 壅塞營衛 或先腫後痛 或先痛後腫 皆曰癰腫 少氣者 腎以陰氣吸納 今腎之陰氣移而并於脾 則腎之陰氣微矣 無以吸納 故少氣	腎移熱於脾 脾之陰液爲熱所耗則虛 脾虛則不磨 熱甚則大腸庚金受克 故令腸中下汁沫不琴 名曰腸澀 是陰不閉藏 陽不禁固 陰陽將絕 故爲邪不可治
脾→肝	脾移寒毒於肝 其爲癰腫 則令筋拘攣 蓋肝主筋故也	脾熱不移則爲自病 若移熱於肝 則爲驚衄 蓋肝主風 熱爲火 風火交作則生驚 肝脈與腎脈會於顛 顛通於鼻 肝得移熱 經脈皆爲實邪 故血從顛出於鼻而爲衄也
肝→心	肝移并陰氣於心 心主火而藏神 神爲寒氣所薄 薄則亂故狂聒中	心爲天君 身之主也 不輕受邪 肝爲將軍之官 氣之急疾 猛於風火 若肝木上逆 移氣熱邪上并於心 心受其邪 則身失其主 故死
心→肺	寒非外感之寒 乃心臟之陰氣也 心既屬火 則其陰氣亦是火矣 火能克金 故令肺消 肺消者 善飲水 但飲一溲二不能消其來飲耳 火金相刑 故不治	肺屬金 其化本燥 心又以熱移之 則傳爲膈消
肺→腎	且肺之陰氣降下 腎受其移并之氣則實 實則不能通調 故爲涌水之證	氣骨皆熱 則陰日消 故令多汗強勁 爲之柔瘥也

## 丑 4. 『黃帝內經素問吳注』의 寒熱傳移

	寒	熱
腎→脾	腎中寒氣移於脾者 乃爲癰腫 凡癰毒之病 寒熱皆能爲之 熱者爲陽毒 寒者爲陰毒 蓋脾主肌肉 得寒則氣聚而堅 堅而不散則爲腫爲癰也 一曰 癰者 壅也 腎以寒水之氣 反傳所勝 侵侮脾土 故壅爲浮腫 其義尤通 少氣者 寒盛則陽虛於下 陽虛則無以化氣也	腎移熱於脾者 陰火上炎也 邪熱在下 眞陰必虧 故傳爲虛損 腎本水藏而挾熱侮脾 故爲腸澀 下痢膿血 陰虛極則水土俱敗 故死不治也
脾→肝	脾中寒勝則反傳於肝 脾寒則肉寒 故爲癰腫 肝寒則筋寒 故爲拘攣	脾移熱於肝者 反傳所勝 熱之甚也 肝藏血 病主驚駭 邪熱薄之則風火交作 故爲驚爲鼻中出血也
肝→心	肝以寒於心 傳其所生也 心主火 氣藏神 受肝邪之寒逆 故神亂而爲狂 心脈出屬心系下膈 陽爲陰抑 則氣有不行 故隔塞不通也	心本屬火移肝以風熱移之 水火相燔 泛及君主 故當死也
心→肺	心與肺 二陽藏也 心移寒於肺者 君火之衰耳 心火不足 則不能溫養肺金 肺氣不溫則不能行化津液 故飲水一而溲則倍之 夫肺者 水之母也 水去多則肺氣從而索矣 故曰肺消 門戶失守 本願日竭 故死不能治	肺屬金 其化本燥 心復以熱移之 則燥愈甚而傳爲膈消 膈消者 膈上焦煩 飲水多而善消也
肺→腎	涌水者 水自下而上 如泉之涌也 水者陰氣也 其本在腎 其末在肺 肺移寒於腎則陽氣不化於下 陽氣不化則水泛爲邪 而客於大腸 以大腸爲肺之合也 但按腹不堅而腸中濯濯有聲者 卽是其候	柔 筋軟無力也 瘥 骨強直也 肺主氣 腎主骨 肺腎皆熱 則眞陰日消 故傳爲柔瘥

## 丑 5. 『類經』의 寒熱傳移

	寒	熱
腎→脾	五臟之氣 以腎爲本. 如腎臟受寒 轉移於脾 脾主肌肉 故癰腫 癰腫則腠理不能外通皮毛乃合三焦 故少氣	腎臟受熱 轉移於脾 脾者 土也 虛則清濁不分 故傳爲 虛腸澀 虛而腸澀 死不可治
脾→肝	脾臟受寒 轉移於肝 肝血凝聚則癰腫 癰腫則筋不柔和 故筋攣	脾臟受熱 轉移於肝 肝氣熱則驚 肝血熱則衄 故爲驚衄
肝→心	肝臟受寒 轉移於心 心者 火也 寒逆於心則狂 申明狂者 由寒氣之隔於中 故曰隔中	肝臟受熱 轉移於心 心者火也 火烈自焚 故死
心→肺	心臟受寒 轉移於肺 則爲肺消 申明肺消者 消渴欲飲 飲一溲二也. 水精不布 下而不上 故死不治	心臟受熱 轉移於肺 膈之上 心肺也 故傳爲膈消, 消 消渴也
肺→腎	肺臟受寒 轉移於腎 則爲涌水 申明涌水者 土虛水泛. 土虛則按腹不堅; 水泛則水氣客於大腸. 疾行則腸鳴而濯濯有聲 如囊之裹漿 此爲涌水之病也	肺臟受熱 轉移於腎 腎主骨 骨屬屈伸 故傳爲柔痠

표 6. 『黃帝內經素問直解』의 寒熱傳移

때문에 함부로 잘못 된 것이라 批判해서는 안 된다 는<sup>32)</sup>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찬국은 寒熱이 轉移되는 순서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肝(春, 木) → 心(夏, 火) → 肺(秋, 金) → 腎(冬, 水) → 脾(長夏, 土)의 순서로서 四時의 순서와 일치한다. 이를 기본으로 해서 寒의 경우는 先天인 腎에서부터 시작하고, 熱의 경우는 後天인 脾에서부터 시작한다<sup>33)</sup>고 하여 轉移되는 형태와 더불어 寒의 轉移는 腎으로부터 시작되고, 熱의 轉移는 脾로부터 시작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역대의 주석과 후대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原文의 校正을 비롯하여, 寒熱이 轉移되어 나타나는 病症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轉移되는 形態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타난 현상을 요약한 것으로서, 어떠한 원리에 따라 五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32)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p.263-264. “本篇五臟相移 不論寒熱 其傳行次序皆同 但無一定規律. 有傳其所勝者 如心傳之肺; 有傳其所生者 如肝傳之心, 肺傳之腎; 有傳其所不勝者 如腎傳之脾 脾傳之肝. 與玉機眞藏論 五臟相通 移皆有次 五臟有病則各傳其所勝之理論相柄鑿. 而與陰陽別論所論病氣傳行同. 如肝之心 謂之生陽 心之肺 謂之死陰 肺之腎謂之重陰 腎之脾謂之辟陰 死不治. 此腎移熱於脾 亦辟陰之屬 故下文云 死不可治. 蓋當時自有此師傳 非信口雌黃之可比.”

33) 朴讚國.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666.

### III. 考察 및 結論

#### 1. 『素問·氣厥論』의 五臟의 寒熱傳移 형태

『素問·氣厥論』에서 논하고 있는 五臟의 寒熱傳移는 寒은 腎에서부터 시작되고, 熱은 脾에서부터 시작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寒熱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肝에서 心으로, 心에서 肺로, 肺에서 腎으로, 腎에서 脾로, 脾에서 肝으로 전해지는 형태이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의 표 7.과 같고, 五行의 순서로 나타내면, 水에서 土로, 土에서 木으로, 木에서 火로, 火에서 金으로, 金에서 水로 전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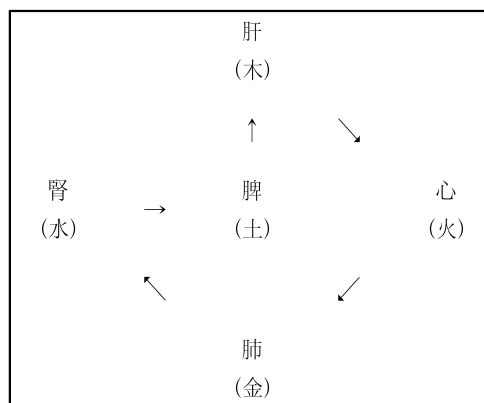


표 7. 『素問·氣厥論』의 五臟의 寒熱傳移

#### 2. 先天八卦와 後天八卦

『內經』에는 『周易』 및 선진시대 이래의 여러 철학논지와 자연과학의 정수가 흡수되어 있다. 그러므로 『內經』은 의학이론의 원조일 뿐 아니라 기타 여

先天八卦				後天八卦			
乾 南				離 南			
兌		巽		巽		坤	
離 東			震 東				西 兌
震		艮		乾			
北				北			
坤				坎			

표 8. 先天八卦와 後天八卦

러 과학, 특히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철학과 의학을 훌륭히 결합시킴으로써 의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므로 『內經』을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면, 그 연원을 『周易』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sup>34)</sup>

八卦는 先天八卦와 後天八卦 두 종류로 나뉘는데, 선천팔괘와 후천팔괘에서卦의 형태와 모습은 모두 같지만, 배열한 方位와 順序는 다르다.

先天八卦는 乾南坤北 離東坎西이며, 後天八卦는 離南坎北 震東兌西로서 간단히 표시하면 표 8.과 같다.

先天八卦에서 後天八卦로 위치가 변화되는 이치는 乾卦에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구해서, 물은 젖은 데로 흐르며 불은 마른 데로 나아가며, 구름은 용을 좇으며 바람은 바람을 따르느니라. 성인이 일어남에 만물이 바라보나니, 하늘에 근본한 것은 위를 친하고, 땅에 근본한 것은 아래를 친하나니 곧 각기 그 류를 따르느니라.(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sup>35)</sup>라고 한 것과 같다.

즉 후천팔괘에서 震卦가 선천팔괘의 離卦의 자리

로 옮기는 것은 同聲相應이 되며; 兌卦가 坎卦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同氣相求가 되며; 坎卦가 坤卦의 위치로 옮기는 것은 水流濕이 되며; 離卦가 乾卦의 위치로 옮기는 것은 火就燥가 되며; 艮卦가 震卦의 위치로 옮기는 것은 雲從龍이 되며; 巽卦가 兌卦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風從虎가 되며; 乾卦가 艮卦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本乎天親上이 되며; 坤卦가 巽卦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本乎地親下에 해당된다.

### 3. 八卦의 五行配屬

八卦의 五行配屬을 보면 震卦는 陽木, 巽卦는 陰木에 속하고; 離卦는 火에 속하고; 艮卦는 陽土, 坤卦는 陰土에 속하고; 乾卦는 陽金, 兌卦는 陰金에 속하고; 坎卦는 水에 속한다.<sup>36)</sup>

### 4. 『素問·氣厥論』과 八卦의 관계

八卦의 五行配屬과 先天八卦가 後天八卦로 바뀌면서 자리를 옮기는 원리를 서로 결합해 보면, 離卦가 乾卦의 위치로 가는 것은 ‘火就燥’로서 火가 金으로 가는 형태이며; 震卦가 離卦의 위치로 가는 것은 ‘同聲相應’으로서 木에서 火로 가는 형태이며; 艮

34) 楊力. 周易과 中國意學. 서울. 法仁文化社. 1995. p.34.

35) 金碩鎮. 周易傳義大全譯解. 서울. 大有學堂. 1996. p.199.

36) 尹暢烈. 河圖洛書와 三易掛圖. 大田. 相生出版. 2010. pp.138-140.

卦가 震卦의 위치로 가는 것은 ‘雲從龍’으로서 土에서 木으로 가는 형태이며; 坎卦가 坤卦의 위치로 가는 것은 ‘水流濕’으로서 水에서 土로 가는 형태이며; 兌卦가 坎卦의 위치로 가는 것은 ‘同氣相求’로서 金에서 水로 가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素問·氣厥論』에서 五臟의 寒熱이 轉移되는 형태와 일치한다. 즉, 『素問·氣厥論』에서 서술한 五臟의 寒熱轉移는 肝에서 心으로 전하는 것은 震卦가 離卦의 자리로 바꾸는 것과 같고, 心에서 肺로 전하는 것은 離卦가 乾卦로 자리를 바꾸는 것과 같고, 肺에서 腎으로 전하는 것은 兌卦가 坎卦의 자리로 바꾸는 것과 같고, 腎에서 脾로 전하는 것은 坎卦가 坤卦의 자리로 바꾸는 것과 같고, 脾에서 肝으로 전하는 것은 艮卦가 震卦의 자리로 바꾸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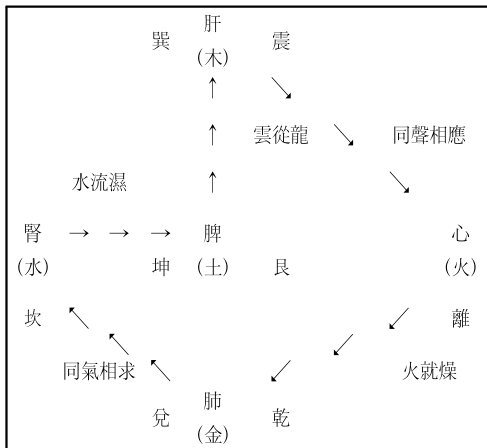


표 9. 『素問·氣厥論』과 八卦와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素問·氣厥論』의 五臟의 寒熱轉移는 단순히 五行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心에서 肺로 轉移되는 것은 ‘火就燥’이며; 肺에서 腎으로 轉移되는 것은 ‘同氣相求’이며; 腎에서 脾로 轉移되는 것은 ‘水流濕’이며; 脾에서 肝으로 轉移되는 것은 ‘雲從龍’이며; 肝에서 心으로 轉移되는 것은 ‘同聲相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先天八卦가 後天八卦로 변화하는 원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思料된다.

## 感謝의 글

본 論文은 2012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작성되었습니다.

## 參考文獻

### 〈논문〉

1. 琴桐樹. 『素問·氣厥論』에 대한 연구. 원광한의학. 1995. 5(1). p.79-80.
2. 方正均. 『素問·玉機眞藏論』의 病傳에 대한 考察. 2006. 대한한의학회지. 10(1).
3. 金鍾鉉, 丁彰炫, 白裕相. 『黃帝內經』에 나타난 病의 傳變類型에 관한 考察. 2010. 대한한의학회지. 23(20). p.170, 187.

### 〈단행본〉

1.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p.12-13.
2.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1991.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263-264.
3. 朴讚國. 黃帝內經素問注釋, 파주. 集文堂. 2005. p.666.
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pp.793-795.
5. 馬蒞.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2. pp.252-253.
6.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 180-181.
7.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167-168.
8. 高世忒.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p.254-255.
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342-343.
10.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法仁文化社. 1995. p.34.
11. 金碩鎮. 周易傳義大全譯解. 서울. 大有學堂. 1996. p.199.
12. 尹暢烈. 河圖洛書와 三易掛圖. 大田. 相生出版. 2010. pp.138-140.